

Morpholift

2



RÉNERGIE
MORPHOLIFT
R.A.R.E.™

Juliette Binoche

LANCÔME
PARIS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유일의 발행부수 공인 멤버십 잡지



기계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유기적인 형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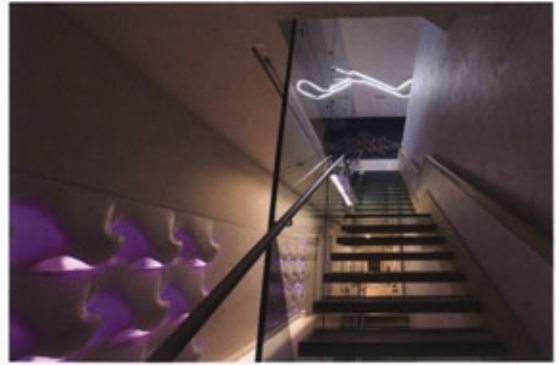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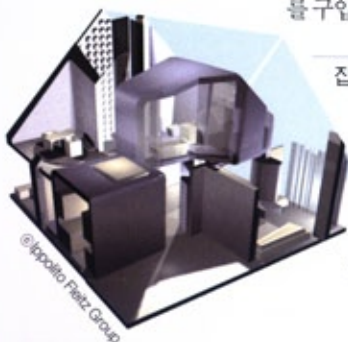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미래 주택에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주방이다. 2007 리빙 투머로 전시에 주방 가구를 출시해 주목받았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듀폰사의 코리안(Corian™)을 사용한 아일랜드 테이블이 화제가 됐다. 흐르는 듯한 유기적인 라인의 디자인이다. LCD 스크린 컴퓨터, 아이팟 등을 내장해 멀티미디어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했는데 와이어리스로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이 특징. 아일랜드 뒤편에 위치한 불박이 수납장 역시 구겨진 듯한 곡선의 손잡이가 인상적이다. 자하 하디드는 이전에 스페인 마드리드의 푸에르타 아메리카(Puerta America) 호텔을 통해서도 벽과 가구가 하나로 이어진 유기적인 공간 유닛을 선보인 적이 있다. 곡선을 따라 LED 사인으로 조명을 대신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욕실은 오픈 플랜으로, 자유자재로 배치

용변을 보는 곳만 분리해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지킬 뿐이다. 반신욕이 보편화 되고, 욕조가 욕실 인테리어의 중요한 소품으로 부각되면서 워크 인 샤워, 접근성을 높인 욕실이 트렌드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더불어 방수 기능이 있는 샤워 트레이, 코팅 마감재 등의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쁜 욕조를 구입하기 전에 배관, 환기, 통풍을 점검하는 것은 필수.

집 안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은 마스터 욕실. 휘고 둥글린 내력벽은 철골 위에 왈넨 컬러의 베니어 우드로 마감하고, 비내력벽은 글라스로 처리해 개방감을 준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 그림자가 제3의 인테리어 요소가 될 것이다. 독일의 이폴리토 플라이트 그룹(Ippolito Fleitz Group) 이 디자인한 중국 안칭 지역의 빌라.



빛과 컬러의 효과, 재미를 주는 디자인

상업 공간에서나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온 과감한 컬러 조명이 미니멀한 미래 주택의 인테리어 포인트. 시시각각 컬러가 변하는 LED 조명으로 장식한 벽을 지나 2층 계단을 올라서면 엔틱한 곡선 모티프를 패턴처럼 그려 넣은 대형 라디오 이터가 걸려 있다. 바닥에 내려놓는 소품에는 인색하고 대형 벽장식과 조명 효과로 테커레이션하는 감각이 필요한 때.

실내에 만든 garden, 흙을 채우고 잔디를 심었다. 좌식 문화인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풍경이지만, 자연을 가까이서 보고 즐긴다는 실험정신은 높이 살 만하다. 디자인과 시공은 스페인의 H 아키텍츠(Harquitectes).



재미 하나까 생각난 미리메코 패턴으로 장식한 엘리베이터. 유명 엘리베이터 브랜드 KONE사는 2006년부터 KONE Deco™를 운영하며 맞춤형으로 엘리베이터 내부를 단장해준다. 전망이 좋지 않은 엘리베이터라면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한 포인트 월로 갤러리 효과를 내도 좋을 듯하다.

리빙 투머로(Living Tomorrow) 리빙 투머로는 1995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House of Future'전을 시작으로, 2003년에는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옮겨 'House and Office of the Future'에 관해, 2007년은 다시 벨기에 빌보르드에서 'House of the Future, Office of the Future'를 주제로 전시장을 오픈했다. 57개 업체가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주거공간뿐 아니라 업무 공간, 자동차, 비행기 등 산업 디자인까지 리빙의 다양한 영역을 아울러 미래의 비전을 보여준다. 2012년까지 끊임없이 리뉴얼될 예정.

문의 | +32 2 263 01 33, www.livingtomorrow.be